



박우량 신안군수를 포함한 23명의 '신안 나눔리더'가 최근 열린 나눔리더 가입식에서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를 다짐하며 인증패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1004심 신안, 나눔의 섬 거듭나다

'신안 나눔리더' 1년간 1백만원 이상 기부패 가입 가능... '1호' 박우량 군수 등 23명 가입

신안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올해 시작한 '신안 나눔리더' 1호에 박우량 군수가 나섰다. 신안군은 최근 신안군민체육관에서 열린 '나눔리더 가입식'에 1호 나눔리더 박우량 신안군수를 포함한 23명이 동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15회 신안군 사회복지가족 한마음대회'와 함께 열렸다. '신안 나눔리더'는 나눔을 실천하는 개인 기부자 모임이다. 지역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공직자들의 사회적 책임과 봉사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1년 안에 100만원 이상 기부하면 가입할 수 있다. 신안군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써줄 나

눔리더를 지속해서 모집하고 있다. 1호 나눔리더 박 군수 등 23명이 신안 나눔리더에 이름을 올렸다.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과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최미숙 의원, 신안군의회 권오연 의원·김기만 의원·안원준 의원·이상주 의원·박용찬 의원·최춘욱 의원·김용배 의원·고숙 의원, 이종만 신안군복지재단 이사장, 조성철 신안군체육회장, 안미영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장, 김정순 신안군여성자원봉사회장, 유억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협의회 협의회장, 김웅기 자은운수 대표, 강행선 신안군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정심 팔금면여성단체협의회장, 최

정남 꿈이 있는 집 원장, 최재형 신안어의풍력 대표, 최연화 대연애드 대표 등이 그 주인공이다. 박우량 군수와 신안군의회 의원, 그리고 신안지역구인 전남도의회원은 모두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또 신안군과 연계된 사회기관·단체장 11명도 나눔의 뜻에 동참했다. 박 군수는 신안 나눔리더 1호로 가입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해 준 23명의 나눔리더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나눔리더 가입식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성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배추 1천t 캐나다로...북미 수출량 1년새 '7배 ↑'

배추·양념 분리... 보관·유통성 향상
해남배추 1000t이 캐나다로 수출되면서 1년 만에 북미 수출량이 7배로 뛰었다. 해남군은 지난 27일 해남군 화원면 지중해영농조합법인에서 해남배추 캐나다 수출을 위한 수출선적식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출량은 48t으로, 앞으로 수출될 모든 물량은 1000t에 달한다. 해남배추는 캐나다에 있는 H-마트에 공급된다. 지난해 캐나다 캘거리의 A-마트에 처음 150t 수출된 이후 1년 만에 계약 물량을 7배로 늘려 추가 수출에 나서게 됐다. 해남군은 보관·유통 과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김치의 특성을 고려해 배추와 김치 양념을 분리해 수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6일 전남도와 영암군, 회창물산㈜, 동진무역, 지엔티웨이, 지중해영농조합, ㈜왕인식품 등 7개 기관·기업이 맺은 '남도김치 수출확대 업무협약'에 담겼다. 해남 지중해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산물수출전문단지로 지정된 법인이다.



해남군이 지난 27일 캐나다에 수출할 해남배추 1차 물량을 선적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마다 3000t에 달하는 해남배추와 양배추, 양파 등 신선 농산물을 동남아시아 등에 꾸준히 수출하고 있다. 이날 수출 선적식은 김차진 해남군 부군수와 서해근 해남군의회 부의장, 이성욱 의원, 전남도 농수산수출팀장, 회창물산, 지엔티웨이, 지중해영농법인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배추 캐나

다 수출을 기념했다. 김차진 해남군 부군수는 "올해 배추가격 불안정으로 국내 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에 북미지역 수출길이 확장되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 우수한 품질의 해남 농산물의 신규 판로 개척 및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 다양한 신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지역인재 양성'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출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영암군미래교육재단이 출범했다. 영암군은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이 지난 27일 영암군실내체육관에서 학생·학부모, 교직원, 마을교육공동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영암군미래교육재단은 (재)영암군민장학회를 계승·발전시킨 민·관·학 협력 모델의 독립법인이다. 미래교육재단은 지역 교육기관을 연결해 영암군 교육정책 관제팀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 사업 발굴 등으로 학생의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영암=전봉천 기자 jbh@kwangju.co.kr>

재단은 지난 9일 영암교육지원청 인가와 법인 인정을 마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율형 미래교육선도지구 성과 나눔'을 주제로 영암교육 한마당도 열려 출범하는 교육재단 앞길을 뜻깊게 했다. 영암군미래교육재단 이사장인 우승희 영암군수는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인재를 찾고, 이들이 지역사회 안팎에서 마을것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재단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재단 전신인 (재)영암군민장학회는 2008년에 설립된 이후 영암군 학생 9000여 명에게 80억4000만여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영암=전봉천 기자 jbh@kwangju.co.kr>



영광 지역대표시품인 모싯잎 송편 가공업체 관계자들이 최근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가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 모싯잎 송편' 품질 강화 힘쓴다

생산업체 역량 강화 워크숍

지역적 표시로 경쟁력을 갖춘 '영광 모싯잎 송편' 생산 업체 20곳이 품질 강화를 위해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영광군과 사단법인 영광에서 모싯잎떡을 만드는 사람들(대표 대군년)은 최근 이틀간 진도 솔비치리조트에서 '영광 떡 가공업체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5년 지리적표시에 등록된 '영광 모싯잎 송편'을 활용하고 있는 20개 업체의 품질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영광 모싯잎 송편을 생산하고 있는 영광지역 60여 개 업체의 3분의 1가량은 지리적표시를 활용하고 있다. <영광=김정원 기자 kw@kwangju.co.kr>

영광군은 이날 행사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을 초청해 지리적표시제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진도에서 지리적표시를 활용하고 있는 '진도 홍주'를 생산하는 대대로영농조합법인을 찾아 품질 향상과 사후 관리 방안을 살펴봤다. 또 회원간 개별 토론회를 열어 영광 모싯잎 송편의 품질 관리와 경쟁 완화 등 4개 주제를 골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 모싯잎떡의 안정적인 지리적표시품 생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떡 가공업체가 주체가 되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정원 기자 kw@kwangju.co.kr>

목포시-신안군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목포시와 신안군이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안내'를 함께 진행한 다. 목포시·신안군은 28-29일 목포경찰서와 신안경찰서를 잇달아 찾아 고향사랑기부제를 안내한다고 28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면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목포시와 신안군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원하는 공공기관 소속 직장인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출근시간대에 홍보물을 나눠주고 지역의 대표 기부 답례품을 소개하고 있다. 두 자치단체는 올해 1월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목포시와 신안군 자치단체장이 상호 기부하고, 목포역 귀성객 맞이, 고향사랑의 날 행사 등 반 참석 등을 진행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